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경전을”

서울 스테이크 부장 이 호 남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겂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디모데후서 4:13)

위의 경전 구절은 사도 바울이 추운 겨울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자기를 면회 하러 올 때 가지고 오라고 한 두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추위를 감싸줄 겂옷이었고 하나는 굶주려 가는 영을 살찌울 경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옥중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아래와 같이 훈계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딤후 2:15, 22)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가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니라. (딤후 3:1~6, 15~17)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훈계한 말씀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말일성도들에게도 합당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실의 삶이 제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경전을 가까이 합시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용기와 신앙을 일깨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경전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 생활을 계속합시다. 말일에 복음을 회복한 요셉

스미스도 생애의 대부분을 물론경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읽고 해석하는 데 보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에 쫓기는 생활에서도 성경을 번역하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큼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말일성도들에게는 복음 교육이 일생을 통하여 받아야 할 영원한 축복입니다.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 ...보라 나의 심령은 주님의 일로 즐거워하며, 나의 마음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게 음미하는도다”(니파이이서 4:15~16)

니파이가 복음을 사모하고 상고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것 같이 우리는 주야로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118)고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가장 좋은 책이란 표준 경전을 말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7 페이지씩 경전을 읽는다면 1년 이내에 성경, 물론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물론경을 10페이지씩 읽는다면 1년에 6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에 충만한 복음을 받은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복음에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요 19:38)고 예수께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줄 앎이라.”(딤후 2:23)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계한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신학 연구원의 원훈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이 말씀은 신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말일성도는 누구든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케 되고자 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를 알고자 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고난속에서도 경전을 상고하고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병자 축복

정 재훈 장로

73년 어느 봄날, 서광주 지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동반자와 막 아침 공부를 마치고 구도자와 약속한 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고 돌아온 동반자는 항상 하든 표정으로 미소지으며 “장로님! 오늘 우린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 하고 있는 나에게 동반자는 지방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방부장께서 교편을 잡으실 때 사랑하던 제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 시경에 우리는 교회에서 지방부장님과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두 장로가 먼저 와 있습니다. 지방부장님께서 서류를 대충 정리하시고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하시며 출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방문할 집의 환경과 발병의 이유를 대강은 지방부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다섯 신권 소유자들은 떠나기에 앞서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0여분 후에 우리는 그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문앞에 도착하자 정신이상이된 부인이 냉정한 표정에 이상한 눈동자를 굴리며 마루 아래로 내려와 정신 병자의 특유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절에서 승려들이 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우리는 실의에 찬 남편의 권고로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귀신이 들렸다는 그 부인도 따라들어 왔는데 그녀는 우리 옆에 점잖게 앉아 늙은 노인의 말소리를 흉내내며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지방부장님과 우린 서로 눈짓으로 대화를 하면서 병자 축복을 시도했으나 결국 그날은 본인의 완강한

거부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돌아 오면서 지방부장님께서 다음에 더 준비를 잘하여 다시 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에 다시 그집에 갔습니다. 그집에 도착하니 구석 방에는 이상한 그림과 무엇을 차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관계 없이 계획대로 기름 축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완강히 거부하던 때와는 달리 그때는 순순히 응해 주었습니다.

나는 기름 축복을 하기 전에 그 부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나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이 여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강한 간증을 성령을 통해 받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지방부장님께서 먼저 기름을 부었고, 지방부장의 지명으로 내가 병자 축복을 했습니다. 이 때 나는 나의 영이 심히 떨리는 것만 의식했을 뿐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후로 5, 6일 지나서 우리는 지방부장님으로부터 그 부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집을 방문했는데 지난날 그렇게도 이상스럽게 보이던 그 부인은 약간 험스럼했으나 믿어지지 않을 만큼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축복 받던 날의 느낌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잡았을 때 느끼는 그런 찌릿함을 느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엇인가가 빠지는 듯함을 느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약 한달 가량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행동했고 고생을 했으나 우리 신권 소유자들의 축복으로 다시 착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

정 재훈 장로는 지금 부산 선교부 울산 지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교회 및 지역 소식

제135주년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모임

지난 3월 17일 저녁 제4와드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상호부조회 제135주년 창립 기념 모임이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털 서울 선교부장과 300여 명의 자매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호남 서울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날의 모임에서 상호부조회 서기인 백 경숙 자매가 상호부조회 역사 보고를 낭독했고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윤 창숙 자매가 상호부조회 역원을 소개하였다.

이날 모임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 영적 순서에서 김 도필 자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옛날 로마의 전성시대에 귀부인들이 보석 수집에 여념이 없을 때 코넬리아라는 귀부인은 두 아들을 살아 있는 보석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산 보석을 가지고 제시거나 앞으로 갖게 될 터인데 이 산 보석의 가치는 우리 자매 각자가 얼마나 정



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호부조회에서 배워야 하고 닦아야 할 것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사랑을 간직하고 생활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제2부 순서에서는 무용, 노래, 연극 등 각 와드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되었다.

계보 협회 지부 사무실

서울 스테이크 제8와드에 계보 협회 한국 지부 사무실이 마련되어 책임자인 김 과영 형제가 염 진하 형제와 박 문수 형제의 도움을 받아가며 계보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계보 자료를 교회 본부 화강암 동굴 기록 보관소에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이를 마이크로필름에 촬영하고, 조상을 위해 대리 침례 의식(신전 의식)이 행하여지도록 가족 기록서와 가계도를 정리하여 교회 본부 계보과에 발송하는 일을 맡고 있다.

197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조상들을 위한 신전 의식(대리 침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 계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본부 계보과로 보냈다. 현재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가족 기록서와 가계도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아시아 지역 담당 신권 계보 책임자인 그레그 거블러 형제가 내한하여 한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계보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모든 회원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계보 지부 사무실에서는 족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호적 등본과 재적 등본을 우송하면 이를 근거로 족보를 찾아 대리 침례 의식이 행하여 지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계보과에 의해 촬영된 계보 자료(족보, 가승, 가첩, 고문집, 전기, 역사 기록)는 약 22만 권에 달하고, 마이크로필름도 1,800권에 달한다.

신학원 중등부 졸업식 및 수료식 갖다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0분, 신학 연구원에서 1977학년도 대학부 입학식과 함께 신학원 중등부 졸업식 및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4년에 걸쳐 신학원 중등부 정규 과정인 물론경, 신약전서, 교회사 등을 마친 제4와드 이재욱 외 63명과, 2년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원 대학부에 진학한 제3와드 김형석 외 77명, 계 140명에게 영예로운 졸업 증서가 수여되었다. 또한 중등부 우수 교사로 일해온 제1와드 정숙경 자매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이들 졸업생 및 수료생은 대부분이 신학원 대학부에 그대로 진학하였다. 이들이 대학부를 졸업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봉사하게 될 때 한국 교회의 발전은 자못 크리라고 기대해 본다.



신임 감독 / 지부장단 소개

서울 스테이크

부산 선교부

춘천 지부

군산 지부

지 부 장 : 조 만구

지 부 장 : 유 성순

제 1 보좌 : 홍 순일

제 1 보좌 : 장 동권

제 2 보좌 : 이 상학

제 2 보좌 : 김 경지

한국의 교회 건축 현황

1951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전해진 이래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이 전세 건물을 전전하면서 모임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의 노력으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건물들이 이 땅의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현재 이미 완전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와드 및 지부는 서울 스테이크의 제1와드, 제2와드, 제3와드, 제4와드, 제9와드와 부산 선교부의 부산 지부이며,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와드나 지부로는 서울 스테이크의 제6와드, 서울 선교부의 대전 지부, 부산 선교부의 동구 지부가 있다.

이 건물은 순 한국 성도들의 기술로 세워지고 있는데 서울 스테이크의 제6와드는 정점관 형제가, 대전 지부는 김상호 형제가, 부산 동구 지부는 윤재철 형제가 각각 건축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신학 연구원에 종교 음악과 신설

신학 연구원은 1977학년도 제1학기부터 교과 과정에 종교 음악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를 담당해 줄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종교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 배문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임규선 형제이다.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실 음악을 가르쳐줄 임규선 형제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